

‘有没有+VP’ 정반의문문 연구

손 경 옥*

<目次>

- | | |
|---------------------|------------------|
| I. 머리말 | IV. ‘有没有+VP’의 특징 |
| II. ‘有没有+VP’의 탄생 動因 | V. 맺음말 |
| III. ‘有没有’의 품사 | |

I. 머리말

동태조사 ‘了’나 ‘过’가 있는 문장의 의문문은 문장 끝에 ‘吗’를 붙이거나 정반형 의문문을 만들면 된다. 동사의 긍부정형을 함께 나열하는 정반의 문문은 ‘V了(过)没有¹⁾’와 ‘V没V(过)’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 (1) a. 你看了今天的晚报吗?
b. 你看了今天的晚报没有?
c. 你没看今天的晚报?
- (2) a. 你吃过这种水果吗?
b. 你吃过这种水果没有?
c. 你没吃过这种水果?

* 대구한의대학교 중어중국학부 교수

1) 문말의 ‘没有’는 부정형 ‘没(有)+VP’에서 ‘VP’가 생략된 것이다. 일부 남방방언에서는 ‘没’로 줄여서 말하기도 하지만 표준어에서는 반드시 ‘没有’를 쓴다.

결과보어가 있는 동사술어문의 의문형도 문장 뒤에 ‘吗’를 붙일 수도 있고 ‘没(有)’를 써서 정반의문문을 만들 수도 있다.²⁾

- (3) a. 你今天看见他了吗?
- b. 你今天看见他了没有?
- c. 你今天看没看见他?

그러나 위의 방법 외에도 다음과 같은 ‘有没有’를 이용한 정반의문 문형이 80년대 이후 소설이나 방송 등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 (4) a. 你有没有看今天的晚报?
- b. 你有没有吃过这种水果?
- c. 你今天有没有看见他?

이런 ‘有没有+VP’정반의문 문형은 일상 구어에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매우 익숙한 표현이 되었지만 ‘비문법적, 혹은 방언적’이라는 인식 속에서 그동안 정규 문법에서 다루지 않았었다. 또 소설이나 드라마, 영화들을 제외한 중국에서 나온 중국어 교재에서도 거의 그런 예문을 찾아볼 수 없었으므로 우리의 학교 문법책에서도 이에 대한 언급은 찾아 볼 수가 없다.

우리나라의 중국어 종사자 중 홍콩이나 대만 체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有没有+VP’ 정반의문 문형을 자연스럽게 구사한다. 중국의 민남어(閩南語)나 광둥어(廣東語)같은 남방어에서 쓰이는 문형이기 때문이다. 소설이나 TV 드라마 등에서 유행처럼 쓰이던 이 표현이 2000년대 전후로 중국에서 출판된 HSK 교재나 회화 교재에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이제 우리도 학교 문법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이를 소개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2) 정반 의문문은 문말에 ‘没有’를 붙이거나 ‘没’로 동사와 보어를 같이 반복시키거나 혹은 ‘没’로 동사만 반복시키는 등의 세 가지 방법이 있다.

(5) 你有没有想过, 光靠咱们一群学生, 是帮助不了所有需要帮助的人的.

우리 학생들의 힘만으로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도울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 봤어? (《高级汉语口语》)

중국어 표준어에 ‘有没有+VP’의문문 형식의 등장을 최초로 소개한 것은 일본학자 太田辰夫(1958(1987:379))이다. 그에 이어 丁声树等(1961)이 ‘天亮了’와 ‘他起来了’의 정반의문문은 각각 ‘天亮了没有?’이고 ‘他起来了没有?’인데 최근(60년대 초)에서야 ‘天有没有亮?’, ‘他有没有起来’와 같은 용법이 생겨났다고 하면서 ‘有没有+VP’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그 용법이 활발하게 쓰이지 않았던 관계로 잊혀 졌다가 중국의 대외 개방이 활발해진 1980년대를 거치면서 이 표현이 널리 쓰이기 시작하자 邢福义(1990)를 시작으로 石毓智, 李讷(2001), 董秀芳(2004), 王森, 王毅, 姜丽(2006) 등에 의해 새로운 정반의문문형 ‘有没有+VP’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들의 연구는 대체로 많은 ‘有没有+VP’형 정반의문문은 기존의 ‘VP了(过)没有?’식 표현이 완전히 대체할 수 없는 나름의 통사적 조건과 화용적 특징이 있음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 외 ‘VP’ 앞에 놓인 ‘有没有’의 품사에 대한 언급도 하고 있는데 동사, 조동사, 부사라는 등 학자마다 다른 견해를 내놓고 있다. 표준 중국어에서 부정 표현인 ‘没有+VP’에 비해 긍정표현인 ‘有+VP’는 아직 비문법적인 표현으로 여겨지므로 긍부정이 합쳐진 ‘有没有’의 품사를 규정하기가 조심스럽고 혼란스러운 것 같다.

‘有没有+VP’용법이 쓰이게 된 動因에 대해서는 기존용법에 의한 유추설, 남방방언 영향설, 중국어 내부 자체 발전설 등으로 나누어진다.

본고는 중국 표준어에 새롭게 등장한 ‘有没有+VP’ 정반 의문문의 탄생 동인 및 품사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 소개하면서 ‘有没有+VP’가 가지는 통사적, 화용적 특징에 대해 서술할 것이다. 예문은 주로 北京大学汉语语言学研究中心(CCL)의 말뭉치 자료와 CCTV 등에서 수집하였다.

II. ‘有没有+VP’의 탄생 動因

1. 유추설(類推說)

太田辰夫(1958{1987:379})는 ‘有没有+VP’는 ‘有没有+NP’ 용법의 유추에서 탄생했으며 유추과정은 세단계로 나눈다고 하였다.

- (6) 제 1단계 : ‘VP’를 부사 ‘没有’로 부정할 수 있다.(‘我没有吃饭’)
- 제 2단계 : ‘有没有’는 ‘没有’와 마찬가지로 빈어를 가질 수 있게 된다.
(‘你没有饭, ‘你有没有饭’)
- 제 3단계 : 유추를 통하여 ‘有没有’도 ‘没有’의 부사 용법을 가지게 되어 ‘VP’ 앞에서 정반의문문을 만들 수 있게 된다.(‘你有没有吃饭’)
- 즉 ‘有没有+NP’ 정반의문문의 형성은 ‘有没有+VP’의 출현이 가능한 단서를 제공하였다.

石毓智, 李讷(2001:278)는 太田辰夫의 유추설에서 더 나아가 유추의 힘은 ‘没有’와 ‘有没有’간에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더욱 넓은 중국어 통사구조 배경이 있다고 하였다. 즉 다음 예문에서처럼 ‘有没有+VP’정반의문문은 ‘(조동사+不+조동사)+VP’의 정반의문문과 구조면에서 동일하다면서 기존 ‘(조동사+不+조동사)+VP’의 용법은 ‘有没有+VP’의 등장과 발전에 또 다른 중요한 動因이 된다고 하였다.

- (7) a. 那你们认为我能不能当作家?
- b. 你愿意不愿意跟我再谈一两天?

2. 중국어 내부 발전설

1960년대 초에 丁声树等(1961:205)는 ‘有没有+VP’용법이 60년대 초

그 당시에 쓰이기 시작했다고 했지만 石毓智, 李讷(2001:269-267)에 의하면 ‘VP+了+没有’가 18세기부터 널리 쓰이기 시작한데 이어 20세기 초에 ‘有没有+VP’ 형식이 등장하였고, ‘有没有+VP’ 의문 문형이 최초로 보이는 용례는 1929년에 쓰여진 茅盾의 소설 《虹》이라고 하였다.

(8) 可是你有没有说起你的肺病至多不过再活三、四年? (茅盾《虹》)

그렇지만 넌 폐병으로 기껏해야 3, 4년 밖에 더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했어?

그러나 이보다 훨씬 전인 1808년경 쓰여진 청대의 백화소설에 ‘有没有+VP’가 쓰인 예문이 발견되었으므로 표준어에서 ‘有没有+VP’의 등장은 石毓智, 李讷(2001:269-267)가 추측한 것 보다 훨씬 더 이른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9) 不知狄青有没有被搜查捕捉, 且看下回分解.(清 西湖居士 《万花楼演义》 第13回)³⁾

狄青이 수사로 체포당했는지는 다음 회의 해설을 보시오.

董秀芳(2004)는 ‘有没有’가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의 정반 중첩 형식에서 의문을 나타내는 조동사가 되기까지 일련의 내부 발전 과정을 겪었다고 하였다. 즉 동사에서 조동사로의 문법화의 과정을 겪었다고 하였다. 먼저 ‘有没有’는 ‘有没有这回事’, ‘有没有这个话’ 등의 지시대사 성격의 ‘NP’ 앞에서 쓰이다가 후에 ‘这回事’, ‘这个话’가 구체적인 사건을 나타내는 ‘VP’로 대체되면서 ‘有没有’는 ‘VP’ 앞에 바로 쓸 수 있게 되었다. 초기의 ‘VP’는 지칭화된 것이어서 ‘NP’와 상통하는 것이 있었다. ‘有没有+지칭화된 VP’는 ‘有没有+NP’가 ‘有没有+VP’로 넘어가던 중간 단계였으며 그 다음의 발전과정에서 진정한 의미의 ‘VP’가 ‘有没有’ 뒤에 오게 되었다고

3) 董秀芳(2004)에서 재인용.

추측 하였다. 다음의 예문들을 통해서 그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10) 康姑太太想了一想道：“这件事情不妥当。无论这个事儿的有没有，始终没有甚麼凭据，回来他叫了娘家的人出来和我们讲起理来……”(清 张春帆 《九尾龟》 第124回)

강(康)실 얘기씨는 생각을 좀 해보더니 말했다. “이 일은 온당하지 않아요. 이 일이 있었든 없었든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증거도 없었는데. 돌아와서 그가 친정집 사람들을 불러내어 이치를 따진다면……”

예문 (10)에서 ‘有没有’는 술어이고 그의 지배를 받는 빈어 ‘这个事儿’는 전치되었다.

(11) 蓉官道：“联锦班的二喜，说你很疼他，给他好些东西，在你家住了一夜，有没有?”(清 陈森编 《品花宝鉴》 第12回)

蓉官은 말했다. “联锦班의 二喜가 말하길 당신이 그를 귀여워한다더군요. 그에게 선물도 많이 하고 당신 집에서 하룻밤 자기도 하고, 그랬어요?”

예문 (11)에서는 ‘这个事’, ‘这个话’와 같은 지시대사 성분이 나타나지 않고 ‘有没有’가 문미에 단독으로 쓰여 의문을 나타내는데 의문 대상은 바로 앞 문장의 사건이다. 이로써 이런 ‘有没有’가 사건을 나타내는 ‘VP’ 앞에 쓰이게 될 때에는 의문을 나타내는 조동사로 쓰인다고 하였다.

石毓智, 李讷(2001:275)는 ‘有没有+VP’의 문문 출현의 구체적인 경로는 중국어의 관련 용법에 근거하여 재구성할 수 있는데, ‘有没有+VP’는 ‘(有没有+NP)+VP’의 연동식에서 발전한 것이라고 하였다.

(12) 他听着有没有脚步声儿来。(老舍 《骆驼祥子》)

그는 발자국 소리가 나는지 듣고 있다.

(13) a. 有没有别人触过这瓶酒?(陈放 《天怒》)

다른 사람이 이 술을 건드린 적 있나요?

b. 有没有触过这瓶酒?

이 술을 건드린 적 있나요?

이런 연동식 문장에서 만약 어떤 원인으로 인하여 ‘有没有’ 뒤의 명사 빈어가 생략되거나 전치되면 (13b)와 같은 ‘有没有+VP’ 문형이 된다고 하였다. 실제 저자는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용례를 찾아 제시하고 있다.

- (14) a. 上次我们一块儿去骑马的人, 有没有找过你? (陈放 《天怒》)
 지난번에 함께 말 타러 갔던 사람이 널 찾아온 적 있어?
 b. 有没有上次我们一块儿去骑马的人找过你?
 c. 先问有没有人找过我. (陈放 《天怒》)
 널 찾아 온 사람이 있었는지부터 물어봐요.

(14a)는 (14b)에서 변환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有没有’ 뒤의 명사 빈어가 도치된 것은 그 빈어의 복잡성과 한정성의 영향이라고 하였다. 그 점은 바로 (14c)에서는 ‘人’이 짧고, 비한정적 명사이므로 ‘有没有’ 뒤에서 빈어로 쓰이고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有没有+NP)+VP’에서 ‘NP’가 복잡하고 한정적이면 앞으로 전치된다는 石毓智, 李讷의 주장은 통찰력이 있다. 다음의 예문에서처럼 ‘(有没有+NP)+VP’의 연동식에 쓰이는 ‘NP’는 모두 짧고 비한정적이다.

- (15) a. 有没有一首歌会让你想起我?
 당신이 나를 떠올리게 할 수 있는 노래가 있을까요?
 b. 我有没有权利决定自己什么时候结婚?
 당신이 언제 결혼할 것인지를 결정할 권리가 내게 있나요?

위 두 사람의 ‘중국어 내부 자체 발전설’은 상당히 독창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정상적인 ‘중국어 내부 발전’의 결과로 ‘有没有+VP’ 문형이 쓰이게 되었다면 이 의문문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没有+VP’는 가능하지만 ‘有+VP’는 쓸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못하므로 설득력이 떨어진 다. 또 5~60년대에 학자들에 의해 소개된 후 표준어에서는 몇 십 년간 별로 쓰이지 않다가(남방어가 모어인 사람을 제외하고) 지난 세기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 시행 이후 갑자기 널리 쓰이게 된 것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남방방언 영향설

赵元任(1979:330)은 廣州語(및 대만의 閩南語)에서 표준어 들어온 새로운 용법은 다음 예문처럼 ‘有’로 ‘没有’의 긍정형식으로 삼는 것이라고 하였다.

(16) 你有看见他没有?

그는 또 예문 (16)이 남방 사람들과 접촉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벌써 합법적인 표현으로 여겨지긴 하지만 긍정 대답으로 ‘有’를 쓰는 것은 여전히 거슬리며 긍정표현보다는 질문으로 ‘有没有看见他?’가 더 많이 쓰이는 것 같다고 하였다. 赵元任의 말은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즉 긍정대답으로 ‘有+VP’는 여전히 비문법적으로 받아들여지며 그래서 긍정 표현보다는 질문의 ‘有没有+VP’가 더 많이 쓰인다.

(17) a. 有没有看见他?

b. 看见了 / ? 有看见

Li & Tomson(1996:409-411)은 ‘了’가 포함 되어 있는 동사의 부정소로 ‘没有’를 쓰던 것이 표준어를 사용하는 남방 사람들 때문에 질문이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没有’의 긍정형태소(affirmative)로 ‘有’를 사용하게끔 확대되었다고 하였다.

이런 남방어를 모어로 하는 사람들이 표준어를 말할 때는 질문이나 답변에서 ‘有’를 마치 완료표지처럼 사용하므로 남방 사람들이 표준어를 할 때 (18a)를 (18b)로 말하기 쉽다. 만약 ‘有’가 동사구의 첫 번째 성분으로

간주되고 있다면 (18c)처럼도 말할 수 있다고 하였다.

- (18) a. 你写错了那个字没有?
- b. 你有没有写错那个字?
- c. 你有写错那个字没有?

우리는 대만 통속소설 속의 대화를 통하여 남방어중에서도 민남어를 모어로 하는 사람들이 표준말 하는 스타일을 엿볼 수 있다.

- (19) a. 我有承诺?
 내가 승낙했어?
- b. 有. 他很肯定的说(方净 <听雨娃娃>)
 그럼. 그는 아주 확신에 차서 말했다.
- (20) a. 你有问那名女子叫甚麽名字吗? (亦君 <藏爱>)
 그 여자의 이름이 뭔지 물어 봤어?
- b. 我真的有警告过她. (方净 <听雨娃娃>)
 난 정말 그녀에게 경고를 한 적이 있어.

위와 같은 남방방언의 영향을 받은 표준 중국어에서는 완료상표지로 ‘了’대신에 ‘有’를 쓰는 것은 아직 이상하게 받아들여지지만 긍정을 결합한 ‘有没有+VP’ 정반의문문 형식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Li & Tomson(1996:409-411)은 이런 현상은 대만과 싱가포르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남부 중국과 홍콩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였지만 지금은 그 보다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중국 남방 사람들이 표준어를 말하는 방식이 중요한 것은 중국의 최근 정치 발전과 관련이 있으며 표준 중국어가 남방 사람들의 영향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밝혀낸 표준어에서 ‘有没有+VP’가 쓰인 가장 빠른 용례가 1808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면 廣州語에서 ‘有没有+VP’사용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는 것 같다. 조은정(2003)에 의하면 긍정과 부정의 중첩

형식인 ‘有行’ 정반의문문은 백 년 전 광주어에서는 ‘有’와 ‘行’가 분리되어 있는 ‘有-VP-行’형식으로 많이 쓰였으나, 현대 광주어에서는 즉 1940년 경부터는 ‘有’와 ‘行’가 나란히 연결되어 있는 ‘有行VP’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⁴⁾

- (21) a. 你有借俾佢有呀?
- b. 你有有借俾佢啊
- = 你有没有借给他呢?

‘有没有+VP’는 먼저 ‘有+VP’ 긍정 용법이나 ‘没有+VP’ 부정 용법이 먼저 생기고 그다음 긍부정의 ‘有没有+VP’가 나타나는 것이 순서에 맞다. ‘有没有+VP’ 정반의문 문형은 광주어 등의 남방어에서 지난 세기 4-50년대를 전후하여 널리 쓰이기 시작했고 어떤 과정으로든 표준어에도 일찍부터 존재를 알렸었다. 그러나 이 문형은 적어도 표준어에서는 ‘有’가 ‘了’와 같은 완료의 용법이 없으므로 이를 대칭시켜 ‘有没有+VP’용법으로 만들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여 비문법적 표현으로 인식되어 한동안 쓰이지 못했던 것 같다.

필자는 표준 중국어 내부에서 ‘有’가 아직 완료상표지 ‘了’와 같은 기능을 갖게 발전(즉 문법화)하기도 전에 ‘有没有+VP’가 먼저 쓰이기 시작한 것은 남방방언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한다. 경제적으로 발전한 홍콩, 대만 두 지역의 드라마, 영화, 노래 속의 말투나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남방어가 모어인 연예인, 기업가들의 남방스타일의 표준어(즉 ‘普通话’)가 많은

4) ‘有-VP(NP)-行’가 ‘有行VP(NP)’로 변하게 된 이유는 후자가 의문문의 성격을 더 강하게 나타낼 수 있어서라고 하였다. 즉 의문문의 성격을 훨씬 더 쉽게 전달할 수 있고 청자 역시 의문문의 성격을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조은정(2003)에 따르면 광주어에서 ‘有行’ 정반의문문의 백여 년 동안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1850년대	→	1880~1910년대	→	1940년대	→	현대
有~无		有~有		有~有		有行 ~
有~有				有有~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본다. 현재도 문법화가 진행 중인 ‘有’의 중국어 내부에서의 발전 단계에 대해서는 3장에서 보다 상세히 서술할 것이다.

III. ‘有没有+VP’의 품사

‘有没有+VP’형식에서 ‘有’나 ‘没有’ 혹은 ‘有没有’ 전체의 품사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며, 동사설, 조동사설, 부사설 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동안 표준 중국어에서 동사 앞에 ‘有’가 쓰이는 예는 없으므로 많은 이가 동사 앞 ‘没有’의 품사에 대해서만 언급했지 ‘有’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이들의 ‘没有’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有没有’에 대한 품사를 추정해보았다.

‘VP’앞의 ‘有’나 ‘没有’에 대해 赵元任, 吕叔湘, 董秀芳 등은 조동사, 朱德熙는 동사, 刘月华, 邢福义는 부사라고 각각 주장하였다. 이는 기존의 사전에 ‘동사’ 용법만 가지는 ‘有’가 앞으로 새로운 품사와 그 관련 용법을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다. 이들의 주장을 다음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赵元任(1979:330)은 ‘没(有)’를 조동사로 보았다. ‘我没有看见他’의 긍정 형식은 ‘有看见他’가 아니라 접미사 ‘了’를 붙여야 하지만 광주어(및 민남어)에서 표준어에 들어온 새로운 용법에서는 ‘有’를 써서 ‘没有’의 긍정형식으로 삼으니 남방 사람들과 접촉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有看见他’나 ‘你有看见他没有?’같은 문장이 합법적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하였다.

吕叔湘(1985)도 술어 성분을 부정하는 ‘没有’는 부사가 아니라 ‘조동사’라고 하였다. 이로써 ‘有没有’에서 긍정 형식인 ‘有’도 조동사라고 유추할 수 있다.

이에 대해 王力(1983:168-169)은 ‘没有’가 완료를 나타내는 영어 조동사 ‘have’의 용법과 비슷하긴 하지만 부정의 ‘没有’만 있고 표준어에 긍정의 ‘有’는 없으므로 이를 조동사와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22) “부정사 ‘无’와 ‘未’ 두 글자는 현대 (중)국어에서 ‘没有’(혹은 ‘没’)로 변화했으며, ‘非’자는 ‘不是’로 변화했다.‘没有’가 ‘未’자로 쓰일 때는 영어의 완료시제(perfect tense)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有’는 ‘过去’의 개념과 상통하므로 주의해야 할 언어 현상 같기도 하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중국의 ‘没有’를 영어나 불어의 조동사(have)와 비교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중국어는 (영어나 불어와는 달리) ‘没有’로서 과거를 부정할 수 있을 뿐, ‘有’자로서 과거를 긍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즉 ‘我吃饱了’라고 하지 ‘我有吃饱’라고 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광둥어나 객가어에서는 질문할 때에 긍정과 부정을 함께 써서 ‘你有食饱无?’라고 한다.”

朱德熙(1984/1997: 70-71) 는 동사 앞의 ‘没’과 ‘没有’는 동사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3) “‘没有孩子’의 긍정형식은 ‘有孩子’이고, ‘没去’의 긍정형식은 ‘有去’가 아니고 ‘去了’이다. 보통 명사성 성분 앞의 ‘没’과 ‘没有’는 동사이고 동사성 성분 앞의 ‘没’과 ‘没有’는 부사라고 한다. 기실 동사 앞이든, 명사 앞이든 ‘没’과 ‘没有’의 어법 기능은 많은 면에서 같다.

A(긍정)	B(부정)	C(부정)	D(의문문)	E(질문에 대한 대답)
有孩子	没孩子	没有孩子	有孩子没有	有 ~ 没有
去了	没去	没有去	去了没有	去了 ~ 没有

A항만 다른데 그러나 어떤 방언(광둥어나 민남어)에서는 ‘没有+동사’의 긍정형식이 ‘有+동사’이다.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동사 앞의 ‘没’과 ‘没有’는 동사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邢福义(1990)는 다음의 예문 (24)와 같이 ‘有没有’가 동사, 명사 겸류의 이음질 동명사(Verbal Noun) 앞에 쓰인 것을 ‘단정적 有没有+VP’라고 규정하고 이 때 ‘有’와 ‘没有’는 동사라고 하였다.

(24) a. 今年的产量有没有增加?
올해의 생산량은 증가하였습니까?

b. 有的地方略有增加/ 有所增加

어떤 곳은 약간 증가하였습니다.

(25) 有没有听到这句话?

이 말을 들었습니까?

(24)에서 ‘有’앞에 정도부사가 올 수 있고 뒤의 ‘VP’가 ‘所’를 가질 수 있으므로 ‘有’는 동사이고 그와 상대적으로 쓰인 ‘没有’도 동사라고 하였다.⁵⁾ 그러나 (25)과 같은 동사 앞에 ‘有没有’를 쓰는 ‘서술적인 ‘有没有+VP’의 ‘有’와 ‘没有’는 부사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有没有+VP’와 같은 특수한 선택의문형은 ‘긍정부사’ ‘有’와 ‘부정부사’ ‘没有’가 ‘VP’앞에서 나란히 쓰인 결과라고 하였다.

太田辰夫도 2장 유추의 세 번째 단계에서 “유추를 통하여 ‘有没有’도 ‘没有’의 부사 용법을 가지게 되어.....”라고 언급하면서 ‘有没有’를 부사로 보았다.

董秀芳(2004)는 ‘VP’ 앞의 ‘有没有’는 용법이 영어의 조동사(auxiliary)와 비슷하므로 조동사로 볼 수 있으며 기능적인 성분이라고 하였다. 표준어에는 조동사로서의 ‘有没有’는 긍정형식인 ‘有’가 없으므로 (즉 ‘有’는 표준어에서는 단독으로 조동사로 쓰일 수가 없다) ‘有没有’는 ‘能不能’과 같은 조동사의 정반 중첩형식이라고는 볼 수 없고 ‘有没有’ 전체를 한 어휘단위로⁶⁾ 사전에 수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刘月华(2007:417-418)는 ‘没有’가 술어 동사나 술어 형용사 앞에 쓰일 때는 부사이며, 동작행위의 발생이나 상태의 실현을 부정한다고 하였다. 반면 ‘没有’가 명사나 수량사 앞에 쓰일 때는 ‘没’은 부사이고 ‘有’는 동사이고 그 뒤의 명사나 수량사는 빈어라고 하였다.

Hopper&traugett(1993{1999:144})는 소유를 나타내는 ‘have’ 동사가

5) 손경옥(2003)은 동명사 앞에 쓰인 ‘有’를 형식동사라고 주장한 바 있다.

6) 李宇明, 唐志东, 《汉族儿童问句系统习得探微》(华中师范大学出版社, 1991)의 연구 결과 아동들이 ‘有没有+VP’의문문을 습득할 때는 ‘有没有’ 전체를 하나의 표지로 습득한다고 지적한 것을 예로 들었다.

어휘적 동사에서 조동사로 발전하고 결국 접사로 발전하는 동사 문법화의 연속변이 과정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다.

- (26) a. have a book 완전동사
 b. have a book to read, have to read a book 의사(부분)조동사
 c. have had a book 완전 조동사
 d. We've built a new garage 접어

중국어 ‘有’도 이와 비슷한 문법화의 길을 걷고 있다. 필자는 이전의 연구에서 ‘做’, ‘进行’, ‘加以’처럼 동사, 명사 검류의 동명사 앞에서 의미적으로 무 내용한 표면구조상의 동사로 쓰이는 ‘有’를 형식동사라고 보고⁷⁾ 그를 연속변이선상에서 부분 조동사와 조동사 사이에 넣었다.⁸⁾

- (27) a. 我有一本书. 완전동사(소유)
 b. 屋里有十来个人. 완전동사(존재)
 c. 我有件事跟你商量 의사(부분)조동사
 d. 这样的事, 近期就有过报道 형식동사(허화동사)
 e. 别叮我, 我真的有警告过她 완료상표지(조동사)

남방방언에서 ‘有’는 표준어에서 보다 문법화가 빨리 이루어져 (27e)처럼 완료상 표지의 조동사로 쓰이지만 표준어에서는 아직 (27d)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아래 질문에 대한 답은 표준어와 민남어 등의 남방어에서 다르게 한다.

- 7) a. 我和他曾经有过交流. (나는 일찍이 그와 교류한 적이 있다.)
 b. 我的健康有好转. (나의 건강이 호전되었다)
 ‘有’는 통사적으로는 비록 중심동사이지만 구체적인 의미의 서술은 ‘交流’와 ‘好转’등 뒤의 동사가 담당하고 ‘有’자신은 의미면에서 내용이 없는 표면구조상의 동사처럼 쓰이므로 이를 형식동사로 보았다. 손경옥(2003)
 8) 손경옥(2004:64)

- (28) a. 你有没有考虑过我的感受 ?
 내 느낌을 고려해본 적이 있나요?
 b. 我有过考虑.(표준어)⁹⁾
 c. 我有考虑过.(남방어)

‘没有+VP’는 16C부터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반해¹⁰⁾ ‘有+VP’는 아직은 표준어에서 방언적이고 비문법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有’는 표준어에서는 이음질의 동명사만 빈어로 가지는 형식동사와 같은 용법만 있을 뿐, 완료상 표지로서 동사를 빈어로 가지는 조동사 용법은 아직 표준어에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有没有+VP’의 품사를 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다음의 예문에서처럼 ‘有+VP’는 북경대학의 말뭉치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고, CCTV 등의 매체에서도 자주 들을 수 있다.

- (29) a. 我是有听过传闻, 但是战况真的有这么糟糕吗? (CCL)
 나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지만, 전쟁 상황이 정말 그렇게 엉망입니까?
 b. 他的专辑我都有听, 我很欣赏他的才华。(CCTV 2008.04.29)
 그의 독집앨범은 모두 들었는데 난 그의 재능을 참 좋아한다.
 c. 党的十七大精神当中就有提到,(CCTV 2008.03.06)
 당의 17차 인민대표대회 정신 중에서라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有没有+VP’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有’를 쓰는 경우도 흔해졌다.

9) 표준어의 ‘有’는 ‘做’, ‘进行’ 등의 다른 형식동사들처럼 ‘了’, ‘着’, ‘过’ 등의 시태조사를 가질 수 있다. 손경옥(2003)
 a. 她马上有了新的决定 그녀는 금방 새로운 결정을 하였다.
 b. 当地海洋管理部门曾有过调查. 현지 해양 관리 부서에서도 조사를 한 적이 있다.
 c. 与中国公司有着十几年的业务往来. 중국 회사와 십 수 년간 거래를 하고 있다.
 10) 石毓智, 李讷(2001:280-281)

- (30) a. “女儿有没有看《集结号》?”我问涵予。
 “따님은《集结号》를 보았나요?”涵予에게 물었다.
 b. “当然有看,她还不太懂,前面战争....”(CCTV 08.05.07)
 “물론 봤죠. 그 아인 앞부분의 전쟁.....를 아직 잘 몰라요”
- (31) a. 记者问李云迪有没有看《色》片?
 기자는李云迪에게 《색(계)》를 보았냐고 물어 보았다.
 b. 他面露尴尬说:“有。”(CCTV 08.09.29)
 그는 난처한 표정으로 “보았다”고 했다.

언어발전과 문법화의 보편성으로 미루어 볼 때 앞으로 빈번한 사용으로 인해 표준어에 ‘有+VP’는 ‘有没有+VP’처럼 자연스럽게 수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刘月华(2007:418)는 ‘有没有+NP’를 ‘동사+没(부정부사)+동사+NP’로 보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필자는 ‘有没有+VP’는 ‘조동사+没(부정부사)+조동사+VP’로 분석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소유’ 동사가 완료상 표지로 문법화 하는 것이 전 세계 언어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라는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토대로 한 가설이다. ‘有’도 ‘爱’나 ‘喜欢’ 등처럼 명사 앞에서는 동사로 동사 앞에서는 조동사로 기능하는 것이라고 본다. 만약 邢福义(1991)처럼 ‘VP’ 앞의 ‘有’를 긍정부사로 본다면 ‘有没有+VP’의 빈번한 사용에 따른 결과로 앞으로 널리 쓰일 것으로 예상되는 예문 (30)에서의 ‘有看’에서의 ‘有’는 또 어떤 품사로 분류해야 하는가? 심리 동사를 제외한 ‘看’과 같은 동사들은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지 않은가?

IV. ‘有没有+VP’의 특징

언어에는 완전히 같은 문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의문문의 여러 다른 형식은 그들 간의 구조나 어기면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刘月华(2007:417-418)는 ‘吗’가 쓰인 판단의문문은 구조상에 있어 제약

이 비교적 적지만, 동사와 ‘不/没’로 구성되는 정반 의문문은 제약이 가장 심하고, 동사 뒤에 ‘没有’를 쓰는 정반의문문도 제약이 심한 편이라고 하였다. 다음 예문처럼 술어 동사 앞에 부사, 대사, 묘사성 부사어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판단의문문만 쓸 수 있다고 하였다.

- (32) a. 把这些东西都送给他吗?
 b.* 把这些东西都送给他不送?
- (33) a. 他昨天又喝酒了吗?
 b. * 他昨天又喝酒没喝酒?
 c. * 他昨天又喝酒了没有?

술어 동사 앞에 부사, 대사나 묘사성 부사어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VP’가 복잡하다는 것인데 이럴 경우 ‘VP了没有?’식의 정반의문문은 안되지만 ‘有没有+VP’식의 정반의문문은 충분히 가능하다.

- (34) a. 有没有把这些东西都送给他?
 b. 他昨天有没有又喝酒?

‘VP了没有?’ 중의 ‘VP’는 일반적으로 짧다. 만약 지나치게 길 경우 한참 말한 후 끝에 다시 ‘没有’를 말해야 하므로 듣는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모두 힘이 들고 이해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그러므로 빈어가 길 경우 다음처럼 빈어를 문두로 전치시켜 주제화시키는 문장이 많다.

- (35) a. 新工艺的原料准备好了没有?
 새로운 공예 원료는 다 준비되었나요?
 b. 会员大会日程你安排好了没有?
 회원 대회 일정은 다 짰습니까?
 c. 那几天开的座谈会, 你参加了没有?
 그 며칠 열렸던 좌담회에 참가 했었나요?

반면 ‘有没有+VP’는 처음부터 ‘有没有’로서 정반 의문의 어조를 만들게 되므로 뒤의 ‘VP’의 길이가 좀 길어도 의문 어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설사 ‘VP’의 구조가 복잡하고 상당히 길더라도 이해에 어려움이 없다. 그리고 ‘有没有+VP’ 문형에서는 의문점을 ‘VP’ 앞에 놓아서 의문점을 부각시키고 질문자의 강렬한 의문어기와 직접적이고 간결한 답안을 얻으려는 간절한 심정을 나타낸다.

- (36) a. 你有没有向他所在地或你所在地的公安机关检举?
그의 소재지나 혹은 당신 소재지의 공안기관에 고발했습니까?
- b. 你有没有尝试把跟我说的这些入情入理的话跟他的妻子说(安顿 《回家》)¹¹⁾
나에게 한 이치에 맞는 말을 그의 아내에게 말하려고 시도는 해 보았어요?

‘有没有+VP’의문문 문장의 용례에 쓰인 ‘VP’는 대부분 모두 복잡하므로 石毓智, 李讷(2001:274)는 ‘VP’의 복잡성은 ‘有没有+VP’의문문 운용의 조건이 된다고 하였다.

‘有没有+VP’의문문은 주로 일상의 구어나 드라마나 소설 등의 대화 부분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다. ‘有没有+VP’에서 ‘VP’가 짧을 경우는 대개 ‘VP了(过)没有’로 바뀌 쓸 수도 있지만 아래 예문처럼 ‘VP’가 길고 그 내부 구조가 복잡할 경우에는 ‘VP了(过)没有’로 대체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有没有+VP’가 그만의 독특한 통사적 특징과 화용적 기능을 중국어에서 확보해 나가고 있음을 말해준다.

다음의 경우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VP’가 복잡하고 길면 ‘VP了(过)没有’식으로는 쓸 수 없고 ‘有没有+VP’ 형식의 정반 의문문을 만들 수밖에 없다.

11) 石毓智, 李讷(2001:273)에서 재인용.

- (37) a. 你有没有把成绩带回去给爸爸看?
성적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께 보여 드렸어?
- b. 一百多年来, 徐福有没有东渡日本成为中日不少学者很感兴趣的问题.
백여 년 동안 徐福은 일본에 가서 중국, 일본의 많은 학자들이 흥미를 느끼는 문제가 되지 않았나요?
- (38) 那你有考虑到如果没有达到理想效果所带来的负面影响?
그렇다면 이상적인 효과에 이르지 못하면 생기게 될 나쁜 영향은 고려해 보지 않았나요?
- (39) 当你丈夫出现在另一个房间门口时你有没有感到意外、不解或是一下子搞糊涂了?
당신 남편이 다른 방문 앞에 나타났을 때 뜻밖이었고, 이해되지 않았고 갑자기 어리둥절했었나요?

(37)은 ‘VP’가 연동식일 경우이고, (38)은 동사의 빈어 길이가 긴 경우이고, (39)는 ‘VP’가 두 개 이상 병렬되어 있는 것이다.

다음 예문처럼 동사가 뒤에 절을 빈어로 가질 경우에도 ‘VP了(过)没有’로 대체할 수 없다.¹²⁾

- (40) a. 你有没有发现孔二小姐连妆都没化呀?
넌 孔二아가씨가 화장도 안했다는 걸 알아챘어?
- b. 你们在南边有没有听说过, 西太后是什么病?
여러분은 남쪽에서 서태후가 무슨 병인지 들은 적 없나요?
- c. 你刚才有没有看见什麼人在这里讲话?
방금 여기에서 누가 연설하는 것을 봤습니까?

‘VP’가 관용어(惯用语)이거나 성어(成语)일 때 혹은 시도 의미의 ‘V(一)

12) 이럴 경우 ‘VP了没有?’로는 대체가 안 되지만 ‘V没V’식의 정반 의문문으로 교체 가능하며 ‘有没有+VP’만큼이나 흔히 쓰인다.
你发现没发现, 孔二小姐连妆都没化呀!
你们在南边听没听说过, 西太后是什么病?
你刚才看没看见什么人在这里讲话?

V'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¹³⁾에도 'VP了(过)没有?'로 대체할 수 없다.

- (41) a. 你有没有替公务员招考制度的制定者想一想?
공무원 선발 시험 제도를 만든 사람을 위해 생각해본 적 있어?
b. 你有没有打电话问问他们?
전화로 그들에게 물어본 적 있어?
- (42) 你想想小时候住过院没有? 有没有心慌气急?
어릴 때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지 생각해 봐, 당황스럽고 다급했었지?

刘月华(2007:417-418)는 판단의문문과 정반의문문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43) '吗'가 쓰인 의문문은 묻는 사람이 예상하는 답안이 대부분 존재하지만 정반 의문문은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답안이 없다. 정반의문문으로 물으면 묻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사전에 답에 대한 예상이 없고 상대방에게서 답을 듣고 싶어 하는 경우이다. 그렇기 때문에 묻는 사람이 답에 대한 예상이 있다면 판단 의문문으로 물어야 한다.

'吗'가 쓰인 판단 의문문은 정반의문문에 비해 어기가 부드럽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항상 먼저 '吗'를 써서 묻고 그 다음에 정반의문문으로 추궁한다. 你听懂了吗? 听懂了没有? 캐묻는 경우에도 정반 의문문을 쓴다. '你说不说? 不说我枪毙了你!'

邵敬民, 朱彦(2002)은 반대로 문말에 '吗'를 쓰는 의문문은 대부분 중립적 태도를 나타내고, 문말에 '没有'를 쓰는 형식은 예상한 사건에 대해 발생했는지의 여부를 묻는데 치중한다고 하였다.

- (44) 你吃药了没有?

즉 위의 예문에서 청자가 약을 먹어야 한다는 것은, 화자나 청자가 모

13) 石毓智, 李讷(2001), 王森, 王毅, 姜丽(2006)에서 인용

두 이는 사실이므로 이 말은 이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났는지의 여부를 묻는 것이라고 하였다. ‘有没有+VP’중의 ‘有’는 ‘VP’의 긍정형식이고 ‘没有’는 부정형식이며 ‘有没有’는 의문점이다. 이것은 질문자가 ‘VP’가 표시하는 구체적이 동작이 무엇인가 보다는 ‘VP’의 내용이 실현, 혹은 경험, 혹은 결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의 여부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으로 느껴진다.

아래의 예문에서도 ‘有没有+VP’ 정반의문문은 전혀 중립적인 입장이 아닌 발화자가 미리 질문 내용과 같은 추측이나 판단을 하고 캐묻는 경우임을 알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有没有+VP’를 쓸 경우 발생 가능한 일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효과적으로 나타낸다. 특히 ‘VP’가 짧을 경우 ‘VP’앞의 ‘有没有’는 그 일(주로 좋지 않은 일)이 발생했을까봐 조바심 내는 심리상태를 긴박감 있게 전달해준다.

- (45) a. 他有没有受到冲击?
그가 충격을 받지는 않았나요?
- b. 现在很多报纸刊物已经慢慢沦为权贵阶层的代言人了, 你们的刊物有没有受到影响?
지금 많은 신문, 간행물들이 권력계층의 대변인으로 전락했는데 당신들 것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까?
- c. 张先生惊恐地再看了一下黑板, 检查有没有写错了字.
장 선생은 두려움으로 칠판을 다시 한 번 더 보며 글자를 틀리게 썼는지 검사했다.

아울러 ‘有没有+VP’는 아래 예문에서처럼 발화자의 의심이나 추측을 청자에게 추궁할 때 많이 사용된다.¹⁴⁾

14) 董秀芳(2004) 발화자의 의심이나 추측을 나타내면서 특히 청자로 부터는 긍정적인 대답을 듣기를 바라는 것을 나타낼 때 ‘有没有+VP’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a. “他有没有提到过我, 哪怕是一次?”我问.
b. “1996年12月份以来, 你有没有离开过大风?” “没有.” “真的没有?” 顾建中重

- (46) a. 我问了前台B405有没有来看过我的留言, 服务小姐说没有.
프린트 B405에게 내 메모를 와서 본 적이 있냐고 물었더니 종업원 아가씨가 그런 적 없다고 했다.
- b. 组织部对落选干部也要去了解, 主要了解在选举过程中有没有违反程序。
조직부는 낙선한 간부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 주로 선거과정에서 절차를 무시 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 c. 教科文组织总部的官员中有没有发生过贪污案件?
유네스코 본부 직원 중 횡령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 d. 你那天坚持开炮的时候是怎么想的, 有没有想到李文彬会变节?
당신이 그날 비관을 계속했을 때에 어떻게李文彬이 변절할 줄은 생각이라도 했어요?

V. 맺음말

요즘 중국어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정반의문형인 ‘有没有+VP’는 ‘방언적이다’, ‘비문법적이다’라는 이유로 중국의 학교 문법교육에서나 우리나라의 중국어 문법교육에서 다루지 않았었다.

이런 문형이 생기게 된 동인을 기존 ‘有没有+NP’나 ‘能不能’과 같은 조동사 정반의문문으로 부터의 유추설, 남방 방언 영향설, 중국어 내부 자체 발전설 등으로 의견이 나뉘고 있다. 유추설이나 중국어 내부 자체 발전설은 정반의문형의 대답에서 부정형인 ‘没有+VP’는 가능하지만 ‘有+VP’는 아직 표준어에서 비문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VP’앞의 ‘有’나 ‘没有’의 품사를 어떻게 볼 것인지 아직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고 표준어에서 ‘有+VP’는 여전히 비문법적인 표현으로 여겨지므로 이를 학교 문법에서 가르쳐야할 경우 ‘VP’앞의 ‘有没有’의 품사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를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有没有+

复了一遍.

VP’는 ‘能不能+VP’처럼 ‘조동사+没(부정부사)+조동사+VP’ 로 분석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有没有+NP’에서는 ‘동사+没(부정부사)+동사+NP’가 된다. ‘有’도 ‘愛’나 ‘喜欢’등처럼 명사 앞에서는 동사로 동사 앞에서는 조동사로 기능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진 어디까지나 ‘有’가 표준어에서 남방어와 같은 완료상 표지 조동사로 문법화 할 것이라는 믿음에서 나온 가설이라고 할 수 있다. 남방어의 ‘有’가 완료상 표지의 조동사로 문법화한 반면, 표준어의 ‘有’는 주로 이음질의 ‘동명사’앞에서 형식동사처럼 쓰이고 있으므로 동사에서 조동사로 문법화 하는 연속선상에서 보면 아직 조동사 전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 널리 쓰이고 있는 ‘有没有+VP’에 대한 대답으로 단독의 ‘有’ 혹은 ‘有+VP’의 대답이 많이 나오므로 앞으로 이런 표현이 표준어에 정착하게 되면 ‘有’의 조동사화가 완성되는 것이다. 그 때 ‘有没有+VP’의 탄생 동인이나 품사에 대해 보다 정확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VP’가 짧을 경우 ‘有没有+VP’는 기존의 ‘VP了(过)没有’로 대체할 수 있지만 ‘VP’가 복잡하고 긴 경우에는 ‘VP了(过)没有’로 대체할 수 없다.

‘有没有+VP’는 발화자의 의심이나 추측을 나타낼 때 많이 사용되며 발생 가능한 일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긴박감 있게 표현하는데도 효과적이다.

< 參考文獻 >

- 陈静, 《现代汉语正反问研究》, 四川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 2004.
 董秀芳, <现代汉语中的助动词“有没有”>, 《语言教学与研究》 2004年 第2期.
 丁声树等, 《现代汉语语法讲话》, 商务印书馆, 1961.
 劉道英, <“A不AB”谓语句与正反问句的比较研究>, 《青海民族学院学报》, 2001.

- 劉月華等, 《实用现代汉语语法》, 商务印书馆, 2007.
- 呂叔湘, <疑問·否定·肯定>, 《中国语文》 1985年 第4期.
- 申云玲, <“有没有”正反问句答句的对称与不对称>, 《忻州师范学院学报》, 2006.
- 石毓智, 李讷著, 《汉语语法化的歷程》, 北京大学出版社, 2001.
- 太田辰夫, 《中国語歴史文法》, 蔣紹愚、徐昌華譯, 北京大学出版社, 1987.
- 王力, <中国語法理論>, 《王力文集》 第1卷, 1983.
- 王森, 王毅, 姜麗, <“有没有/有/没有+VP”句>, 《中国语文》 2006年 第1期.
- 邢福义, <“有没有VP”疑問句式>, 《华中师范大学学报》(哲社版), 1990年 1期.
- 楊海明, <近百年來北京話正反問句動態研究>, 《暨南學報》, 2007.
- 邵敬民, 朱彥, <“是不是VP”問句的肯定性傾向及其類型意義>, 《世界漢語教學》 2002年 第3期.
- 趙元任著, 呂叔湘譯, 《漢語口語語法》, 商務印書館, 1979/2001.
- 朱德熙, 《語法講義》, 商務印書館, 1997.
- 손경옥, <‘有’는 형식동사인가?>, 《中国语文論叢》第24輯, 2003.
- 손경옥, <동사 ‘有’의 문법화 현상 연구>, 《中語中文學》第34輯, 2004.
- 조은정, <近百年 廣州語 正反疑問文의 變化樣相>, 《中国文學研究》27호, 2003.
- 찰스N.리&산드라A.톰슨, 《표준중국어문법》, 한울아카데미, 1995.
- 김은일 외 옮김, 《문법화》, 한신문화사, 1999, Paul J. Hopper & Elizabeth Closs Traugott, 《Grammaticalization》, Cambridge University, London. 1993.
- 교재류
- 김성동, 조경희, 《새로 쓴 중국어 문법·작문》, 도서출판 케이시, 1999.
- 박귀진, 민병석 편역, 《왜? 라는 질문에 속 시원히 답해주는 중국어문법 책》, SISA EDUCATION, 2005.
- 《高級漢語口語》, 第二版, 北京大學出版社, 1997/2007.

< 中文提要 >

现代汉语里‘有没有+VP’正反问句的使用频率越来越高,但由于一直被认为不规范的或受方言影响的,韩国的中国语法书上至今没有题到过这种问句.关于这种问句的诞生背景有着几种说法,如类推、南方方言影响、汉语内部发展之自然结果等等.

像闽南话与广东话等的南方方言里‘有’早就语法化为完成体标志,不过普通话里的‘有’还只能用在名动词前面,并可以带‘了’,‘着’,‘过’等的时态助词,在从动词走向助动词的语法化路程上还停留在助动词前一个阶段.‘有没有+VP’问句的回答时,若‘有+VP’被一般语言使用者广范接受(现在用‘VP了’),普通话里的‘有’可以说完成了走向助动词的语法化.到时候我们就可以对‘有没有+VP’的诞生动因、词类进行更深入的探讨.

有的‘有没有+VP’不能以‘VP了没有’所取代,这表明它具有其独特的结构特徵与语用功能.‘有没有+VP’正反问句多用于表达说话者的怀疑或猜测,并能对表达可能发生事情的担心及忧虑有效地增添一些迫切感.

주제어 : ‘有没有+VP’正反问句, 类推, 南方方言, 语法化, 助动词